

황정민 이어 전도연·하정우까지... 톱배우들 스크린서 안방극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 거대 자본 바탕 둔 대작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스크린 대신 안방극장을 택하는 톱배우들이 늘고 있다.

배우 황정민이 2012년 '한반도' 이후 8년 만에 JTBC '허쉬'를 택한 데 이어 전도연, 하정우, 유아인 등도 저마다 드라마 출연을 확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월급쟁이 기자들의 밥벌이 라이프를 그린 '허쉬'는 기대만큼의 흥행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황정민의 존재감만큼 인정받으며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뒤이어 전도연과 류준열이 올 하반기 JTBC에서 방송할 '인간실격'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21일 전해졌다.

'굿와이프' 이후 5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전도연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길을 잃은 중년의 여자 부정으로, 류준열은 청춘의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인 남자 강제로 분해 밀도 높은 교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이 작품은 멜로영화의 거장 허진호 감독과 '건축학개론' 등의 시나리오를 쓴 김지혜 작가가 제작에 나서 영화 같은 수준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외전인 '킹덤: 아신전'의 주인공으로 전지현이 나선다고 발표했다. 전지현의 드라마 출연도 '푸른 바다의 전설' 이후 5년 만이다.

전지현은 '킹덤' 시리즈의 김은희 작가와 tvN '지리산'으로도 함께한다.

이 작품은 광활한 지리산의 비경을 배경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며 전지현 외에도 주지훈, 성동일, 오정세 등이 출연해 몰입감 높은 작품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출도 '도깨비', '스위트홈' 등의 이응복 PD가 맡았다.

캐스팅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드라마 출연이 가시화된 영화배우들도 많다. 최민식은 '범죄도시' 등을 연출한 강윤석 감독의 드라마 '카지노'에 출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출연이 성사된다면 1997년 '사랑과 이별' 이후 24년 만의 드라마 출연이다.

하정우 역시 '공작'의 윤종빈 감독과 손잡고 '수리남'에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영화와 드라마로 동시에 제작될 수도 있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정우의 가장 최근 드라마는 14년 전 방영된 '히트'다.

이 밖에도 조인성은 웹툰 작가 강풍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무빙', 유아인은 연상호 감독의 드라마 '지옥' 출연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스크린에 치중했던 톱배우들이 드라마를 선택하는 배경으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산업이 침체한 점, 그리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와 CJ ENM 등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영화 못지않은 수준급 작품을 내놓는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공개되기만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독자가 보고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배우들로서는 코로나19로 국내에 갇힌 상황에서도 해외 팬들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돼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킹덤:아신전'의 전지현



'허쉬'의 황정민



'인간실격'의 전도연

'싱어게인'부터 '아카이브K'까지...레트로 음악여행 인기

"1990년대 대중음악 황금기 재소환 트렌드 지속할 것"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로 꼽히는 1990년. 방송 가도 그 시절 음악들을 다시 불러내고 새롭게 해석하는 재미에 빠졌다.

MBC TV 간판 예능이었던 '무한도전' 시절 시도된 '토토가' 프로젝트로부터 촉발된 레트로 음악 예능은 이후로도 JTBC '슈가맨', 엠넷 '퀴즈와 음악사이', KBS조이(joy) '이십세기 히트-트송' 등으로 이어지며 기대 이상으로 흥행하고 있다.

현재도 디스커버리와 JTBC가 공동으로 제작해 방영 중인 '싱어게인'과 SBS TV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K'가 화제 속에 방영 중이다.

특히 '싱어게인'은 화제성뿐만 아니라 시청률 측면에서도 선전하며(8회 8.5%,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상승장구 중이다. 무대가 간절한 가수에게 무대를 열어준 이 프로그램은 통기타 하나로 한영애의 '여보세요'를 맛깔나게 소화해낸 63호, 박진영의 '허니(honey)'를 개성 넘치게 부른 30호 가수 등 실력과 무명 가수를 발굴해냈다.

특히 본인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는 '톱(TOP)10'에 들기 위한 참가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며 열기를 더했다. 현재 마지막 1명을 선택할 패자부활전



'싱어게인'

이 남은 상태다.

'아카이브K'는 한국 대중음악의 맥을 되짚는 기획으로, 스타트는 역시 가장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1990년대 음악이었다.

/연합뉴스

1·2회에서는 변진섭·임창정·김종국·조성모·백지영·이수영 등 많은 발라드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들이 출연했고, 3회에는 박미경, 디제이디오씨(DJ DOC), 터보(김정남), 김현정 등 댄스가수들이 출격해 1990년대를 추억했다. 오는 24일 방송도 현진영, 클론, 플라 등이 출연하는 '문나이트' 편으로 꾸며질 예정이라 기대를 더한다.

방송가와 가요계에서는 이 같은 레트로 음악 예능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윤하 음악평론가는 21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21세기 들어 과거 음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예전에 인기 있던 팀들이 재결합해 투어를 하거나 앨범을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레트로풍의 음악을 부르는 신인 음악가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1990년대가 대중음악 황금기였고, 당시 문화를 풍족하게 즐긴 세대가 지금 문화 방송계 주류를 차지하면서 '그때 그 시절' 음악을 소환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또 새로운 세대는 당시 음악을 발굴하고 새롭게 즐기는 데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적 퇴행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이런 여러 요인을 통해 레트로 유행의 기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드라마 '설국열차' 시즌 2 방영 앞두고 시즌3 제작 확정

봉준호 감독의 동명 영화(2013)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설국열차'가 시즌 3을 선보인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19일(현지시간) 드라마 '설국열차'가 오는 25일 TNT(위너미디어의 케이블 채널)에서 시즌 2 공개를 일주일 앞두고 시즌 3 제작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설국열차'는 얼어붙은 황무지가 된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인류를 태우고 7년째 달리는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드라마 '설국열차'는 2015년부터 기획됐으나 여러 이유로 미뤄지다 2018년 제작을 확정하고



지난해 5~7월 시즌 1을 선보였다.

앞선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원작자인 봉준호 감독과 영화 제작자인 박찬욱 감독, 이미경 CJ 부회장 등이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연합뉴스

트로트 예능 TV조선-MBN 충돌... '포맷 표절' 쌍방 소송할 듯

TV조선이 자사 트로트 예능의 포맷을 표절했다며 MBN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MBN도 TV조선이 자사의 다른 예능을 베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TV조선은 지난 19일 "지속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MBN의 포맷 도용 행위가 계속돼 '보이스 트롯'을 대상으로 포맷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MBN의 '보이스 트롯'과 '보이스퀸'이 자사의 '미스트롯'과 '미스트롯' 포맷을 도용했고, '트롯파이터'는 '사랑의 콜센터'를 베

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MBN은 1년여 동안 어떠한 응답도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소송을 앞둔 1월 13일 처음으로 표절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N은 트로트 예능들은 표절한 게 아니며 오히려 TV조선도 자사의 다른 예능 포맷을 도용했다고 반박했다.

MBN 역시 이날 입장을 내고 "'보이스 트롯', '트롯파이터' 등은 TV조선의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과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